

푸틴의 '보란 듯' 몽골 방문에 국제형사재판소 한계 재확인

ICC 회원국 협조없인 '집행 불가'...제재 수단 마땅치 않아 권한·역할 정치적 논리, 이해관계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원국인 몽골 방문을 계기로 ICC 역할의 한계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몽골 공식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울란바토르 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1박2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그의 이번 몽골 방문은 지난해 3월 ICC 체포영장 발부 이후 ICC 회원국 방문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 이목이 쏠렸다.

이론적으로 ICC 회원국인 몽골은 푸틴 대통령이 자국 영토에 발을 들이는 순간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널리 예상된 대로 푸틴 대통령은 체포되기는커녕 극진한 환대 속 '보란 듯' 일정을 차질 없이 소화했다.

이는 결정적으로 ICC가 지난 권한의

한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ICC는 중대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상설 국제재판소이지만 체포영장 집행 등 독자적으로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수단이 없다. ICC 가입조약인 로마 규정에 서명한 당사국들의 자발적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ICC가 푸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때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피오르트 호프만스키 전 ICC 재판소장도 재판 시절인 지난해 11월 관련 질문에 "현재 16명의 개인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실행에 옮겨지고 있지 않다. 푸틴도 16명 중 한 명일 뿐"이라며 "개인을 체포하기에는 아직 국제사회의 협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몽골의 경우 석유 수입량 95%가량이



1박2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몽골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울란바토르 공항에서 영접을 받고 있다. /EPA=연합뉴스

러시아산일 정도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영장 집행 협조를 배제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가 사전에 몽골 측으로부터

'불체포 협약'을 받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ICC가 몽골을 차후 체포영장 집행 협조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

할 수 있다고 관측한다.

그러나 정작 사법처리 수순을 밟더라도 회원국에 대한 제재 등 심각한 처벌 수단이 없어 사실상 '규탄' 메시지를 내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ICC 회원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체노사이드(집단학살) 혐의로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오마르 알-바시르 전 수단 대통령이 2015년 남아공을 방문했을 때 그를 체포하지 않았으나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넘어간 전례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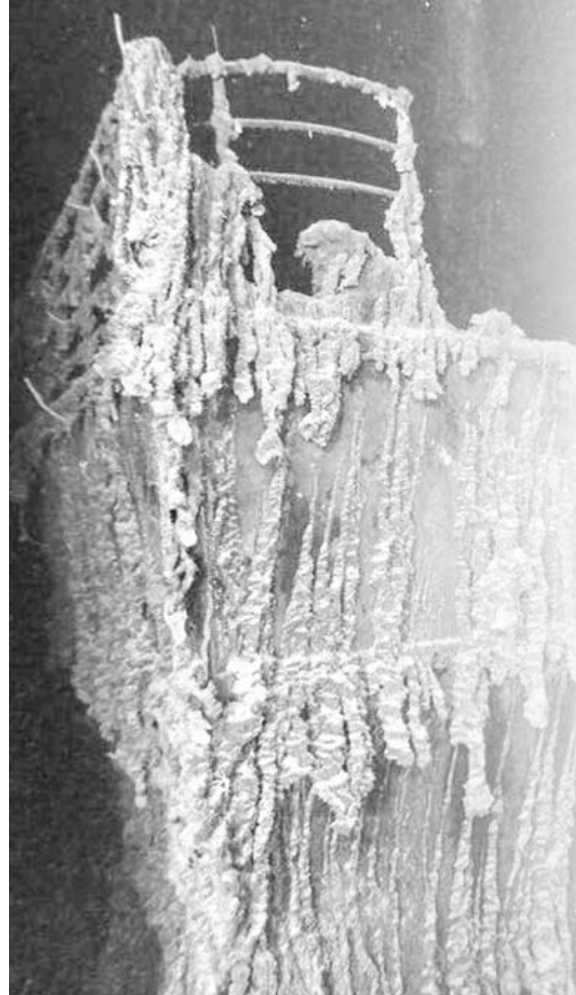
ICC 회원국이 124개국에 달하지만 정작 러시아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인도 등 핵심 국가들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ICC 권한과 역할이 정치적 논리와 이해관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다.

이스라엘 동맹국인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ICC 검사가 하마스 최고지도부 3인과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동시 청구하자 "터무니없다"고 공개 비판했다.

당시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ICC 지도부에 대한 "제재"를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심해 속 모습 드러낸 '초호화 유람선 타이태닉호'



일등석 전시 다이애나 동상 38년 만에 발견

1912년 빙산 충돌로 침몰해 1천514명이 사망한 초호화 유람선 타이태닉호의 최근 모습이 공개됐다. (사진)

타이태닉호의 독점 인양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민간기업 'RMS 타이태닉'은 지난 7월12일부터 20여일간 진행한 심해 타이태닉호 탐사에서 촬영된 사진을 지난 2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 회사가 타이태닉호 심해 탐사에 나선 것은 2010년 이후 14년 만이다. 이번 탐사에는 사람을 태운 잠수정 대신 원격 조종이 가능한 무인 로봇이 동원돼 타이태닉호 잔해 현장을 촬영했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타이태닉호 침몰을 다룬 영화 '타이타닉'(1997)에서 주인공 잭과 로즈가 '백허그'(뒤에서 하는 포옹)를 한 장소로 유명한 뱃머리의 난간이 최근 심하게 파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2년 전 공개됐던 다른 탐사 사진에서는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었던 뱃머리 난간은 2년 사이 부식이 진행돼 일부가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1986년 이후로 발견되지 않아 영원히 사라진 것으로 추정됐던 다이애나 동상을 40여년만에 발견하는 성과도 있었다.

로마 신화에서 사랑의 여신인 다이애나의 모습을 본뜬 청동 조각상은 타이태닉호의 일등석 라운지 안에 전시돼 있던 것으로, 침몰 당시 라운지가 산산조각이 나면서 선박 외부로 뿜겨 나갔다.

이번에 발견된 다이애나 동상은 여전히 한쪽 팔을 앞으로 뻗은 채로 해저 모래바닥에 처박혀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탐사를 진행한 RMS 타이태닉은 타이태닉호 잔해 유물 채취 허가를 두고 미국 정부와 최근 갈등을 빚고 있다.

이 회사는 1987년부터 탐사를 통해 5천점이 넘는 타이태닉호 유물을 회수해 일부는 판매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은 타이태닉호 사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잔해에서 유물을 회수하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의회도 2017년 난파선을 인양하거나 현장을 물리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국의 제재 시도에도 불구하고 탐사 및 유물 회수 의지를 밝혀왔던 RMS 타이태닉은 지난해 타이태닉호 탐사 관광에 나선 탐사정 한 대가 폭발해 탑승객 5명 전원이 사망한 이후로는 유인 탐사 계획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연합뉴스

EU, 홍해 '불타는 유조선' 예인 안 한다

유럽연합(EU) 해군 임무단이 지난 3일(현지시간) 안전상 이유로 홍해에서 불타고 있는 유조선 수니온호 예인 시도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홍해 안보를 위해 파견된 EU 해군 임무단 '아스피데스'는 이날 "인양 작업 책임이 있는 민간 업체들이 예인 작업을 수행할 만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 업체들이 현재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임무단은 '안전상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AP는 여전히 유조선 안에서 화재가 계속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리스 선적인 수니온호는 원유 15만 t을 싣고 이라크에서 그리스로 가던 중 지난달 21일 예멘 항구도시 호데이다 인근 해상에서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공격을 받았다.

선원들은 프랑스 구축함에 의해 구출됐지만 수니온호는 이곳에 계속 남겨진 채 불타기 시작했다.

EU가 사실상 유조선 예인을 포기하면서 선박내 실려있는 대량의 원유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민주공고서 탈옥 시도 129명 사망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공고)의 교도소에서 집단 탈옥을 시도하던 수감자 129명이 숨졌다.

민주공고 내무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 이들 가운데 24명은 '경고 사격'으로 사망했고 부상한 59명을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사망자 대부분은 과밀한 교도소에서 한쪽으로 몰리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수감자들 공격으로 교도소 시설 일부가 불에 탔으나 현재는 질서를 회복했다고 덧붙였다.

인근 주민들은 지난 2일 자정께부터 아침까지 총격이 계속됐다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공고 최대 규모인 이 교도소는 정원 1천500명에 1만2천명 넘게 수감돼 있으며 대부분 미결수다. /연합뉴스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상무지국 453-2554	• 유동지국 222-8171	• 오치지국 261-9461
	• 산수지국 224-4188	• 광천지국 374-2120	• 운암지국 529-3548	• 문흥지국 261-9462
	• 학운지국 673-6836	• 진월지국 676-2726	• 용봉지국 261-1503	• 일곡지국 573-3200
	• 화정지국 372-9140	• 봉선지국 673-6836	• 신가지국 954-1420	• 첨단지국 971-7374
	• 금호지국 376-7153	• 백운지국 673-0123	• 양산지국 574-3745	• 치명지국 371-9584
• 풍암지국 603-0311	• 두암지국 266-1920	• 하남지국 951-9954	• 수원지국 955-0451	
• 노대지국 674-3581	• 농성지국 362-4102	• 운남지국 952-1687	• 광산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나주시사 061)335-0005	• 보성지사 061)852-6644	• 무안지사 061)453-3645
	• 동곡포지사 061)278-0740	• 광양지사 061)793-6800	• 화순지사 061)373-7795	• 함평지사 061)322-0882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구례지사 061)782-4696	• 장흥지사 061)863-6800	• 영광지사 061)353-5133
	• 신안지사 061)980-8300	• 담양지사 061)383-5566	• 강진지사 061)432-8899	• 장성지사 061)394-3636
	• 순천지사 061)746-1600	• 곡성지사 061)362-5746	• 해남지사 061)535-5849	• 완도지사 061)555-0134
	• 여수지사 061)851-6433	• 고흥지사 061)832-6290	• 영암지사 061)473-7151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